Letter from Jesus
예수내구주
JESUS MY SAVIOUR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 16:16)

제29호 통권721호. 2019. 5. 19.

| **등록번호** 영등포, 라00501(2017. 1. 12) | **발행처** 재단법인 기독교베뢰아아카데미 진흥재단 | **편집** 베뢰아센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박주선 집사는 상무이사로서 토목 시공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18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소장으로 일했던 박주선 집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창업 후 회사의 주력 사업으로 서울시 도로사업소의 노후포장도로공사를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도로 공사에 최적화하도록 회사의 시공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공사 중에서 입찰을 통해 한 건의 공사를 낙찰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원하는 공사는 서울시 450개 업체 모두가 바라는 공사였기 때문에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사업하기 힘든 환경 속에서 그는 꾸준히 입찰에 참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인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초등부 교사로 섬기는 그를 위해 동료 교사들도 함께 기도해주었고 그 결과 서부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노후포장도로공사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리고 창업 후 3년 만에 두 곳의 도로사업소에서 발주한 공사를 하는 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오늘도 박주선 상무이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기업이 되겠다는 소망으로 밤낮없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암 치료를 통해 경험한 은혜

분당예배당 **김해주** 집사(1970년 생)

저는 당시 중국 천진에 거주하는 29세의 젊고 건강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한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염증으로 인해 부인과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담당 의사 대신 다른 의사가 염증 치료를 해주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것이 보인다며 조직검사를 권했습니다.

보름이 지나 검사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걱정스러운 마음을 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자궁경부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평소 건강을 자신했던 저에게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암 진단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축사로 드러난 암의 원인

암 진단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는 다른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다시 받았지만 자궁경부암이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에 선교하러 오신 원광희 장로님을 통해 예수를 믿은 지 한 달 때쯤 암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병에 걸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간증 테이프에서 들은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겨울, 혼자 꿍꿍 앓다가 심신이 약해져 원광희 장로님 내외분께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은 병을 낫기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맞지만 믿음이 있다고 해서 의학 치료를 받지 않는 것은 위험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사(逐禗.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로 몸에서 강도 같은 귀신을 쫓아내고 부서진 집을 수리하듯이 병원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병에 원인을 가져온 귀신을 강도로 비유해 설명해 주시고 축사 받고 병원에 가는 것을 권하셨습니다.

병원에 가기 전, 축사를 받기 위해 원강희 장로님의 부인이신 박경자 집사님 앞에 섰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눈을 쳐다보는데 눈빛이 정말 무서웠습니다. 마치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어디인가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집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축사를 하자 이모할머니 귀신이 드러났습니다. 6개월만 있으면 저를 데려갈 수 있는데 못 데려가는 것이 억울하다며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떠났습니다. 귀신이 나가자 몸에 기운은 없었지만 마음은 평안해졌습니다. 축사를 마치고 집사님은 여러 명의 이모할머니 귀신이 나왔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이모할머니가 계셨다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사실이 황당했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친정아버지께 전화했고 아버지는 제가 이모할머니의 존재를 아는 것에 대해 깜짝 놀라셨습니다. 세 분의 이모할머니가 계셨는데 한 분만 빼고 두 분은 30세 이전에 암으로 돌아가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받은 기도 응답

중국 천진에 위치한 암전문 병원을 찾아갔으나 수술을 받기까지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병실마다 환자가 많아서 입원하기가 힘들고 둘째는 IMF를 겪은 후 경제적으로 어려워 큰 액수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급한 일이었던 병실은 기도하자마자 나와서 순조롭게 입원할 수 있었고 연이어 생각지 못한 사람을 통해 병원비를 채움 받았습니다. 병원비는 제가 말하기도 전에 아는 언니의 남편이 찾아와 돈을 선뜻 빌려줬습니다. 평소 인색하다고 소문 난 분이었는데 돈을 빌려주니 의아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언니는 깜짝 놀라며 남편의 일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입원해서 3일 후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취가 잘되지 않아 수술 도중에 깨어났고 저의 고통 소리를 들은 의사는 전신 마취를 다시 시도했습니다. 두 번의 마취로 인해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깨어난 후에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얼굴도 모르는 조선족 성도들이 수술실 밖에서 기도해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고 빠르게 회복하여 보름 만에 퇴원했습니다.

퇴원 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으나 겉으로 볼 때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마음에 응어리가 남아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저는 악을 쓰듯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마치고 방언 기도(영이 하는 기도, 고전 14:14)를 통역 받는데,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던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왜 자궁경부암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는지 또 그로 인해 여자로서 더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실에 원망과 서러움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내 영의 기도를 듣고 하염없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도로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령의 위로를 받으니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자궁경부암을 치료받기까지 힘든 시간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까지도 함께 해주셨고 수술을 잘 받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를 주시고 영혼의 구원과 육체의 건강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Culture

피아니스트 백혜선 공연, 세종문화회관서 1천원에 만난다



피아니스트 백혜선(54)의 연주를 단돈 1천원에 즐기는 콘서트가 열린다. 세종문화회관은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세종체임버홀에서 '클래식 오딧세이'를 연다. 이는 세종문화회관이 12년째 매달 사회공헌 차원에서 여는 '온쉼표' 공연 중에 하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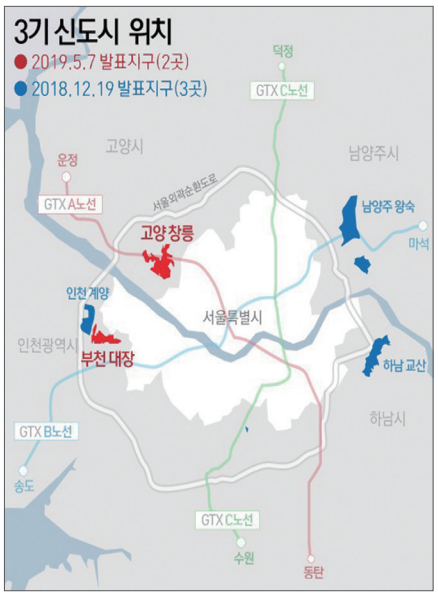
이달 공연에서는 피아니스트 백혜선과 젊은 음악인들의 모임 아르끼 뮤직 소사이어티, 대만 피아니스트 첸 웨이치가 풍성한 무대를 선사한다. 백혜선은 28일과 30일 이틀간 '폭풍', '비창', '열정', '월광' 등 베토벤 소나타와 라벨 '라 발스', 리스트 '돈주앙의 회상' 등을 연주한다. 첸 웨이치는 아르끼 뮤직소사이어티의 현악 6중주에 힘입어 영화 '말할 수 없는 비밀'의 OST곡인 시크릿(Secret), 차이코프스키와 브람스 '현악 6중주', 드보르작 '피아노 5중주' 등 친숙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선보이는 '클래식 오딧세이'는 다채로운 클래식을 통해 온전한 쉼의 순간을 줄 것이다.

Social

고양 창릉·부천 대장에 3기 신도시 건설

정부가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에 제3기 신도시를 짓는다. 국토교통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안-제3차 신규택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새 신도시 입지는 고양시 창릉동(813만㎡·3만8천가구), 부천시 대장동(343만㎡·2만가구)으로 결정됐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1200가구), 창동역 복합환승센터(300가구), 왕십리역 철도부지(300가구) 등 서울권 택지에도 1만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 이 밖에 안산 장상(신안산선 신설역), 용인 구성역(분당선 구성역, GTX-A 신설역), 안양 인덕원(4호선 인덕원역) 등 '경기권' 지구에도 4만2천가구가 지어진다. 이를 포함한 택지 22곳에 공급되는 전체 주택 규모는 모두 11만가구이다.



Q&A



협상의 기술

Q 협상을 잘하려면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A 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상을 시작하기 전, 몇 분이라도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 협조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합의에 이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면 상대가 말하는 동안에 상대방의 주장에 귀 기울이고 상대방의 핵심 주장을 다시 정리해서 올바로 이해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기술은 상대편이 당신의 경청 기술을 모방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협상가는 얼마를 양보하고 어느 것을 요구할지 어려움을 느낍니다. 이럴 경우 당신에게 우선순위가 낮은 것 중에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 해당 사항을 상대방에게 양보합니다. 대신 당신이 원하는 부분을 양보하도록 제안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 제안만 하기보다는 동시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모든 제안을 거절하면 그중 가장 선호하는 안과 그 이유를 묻고 해당 안을 더욱 발전시키거나 양측이 모두 만족할 선택지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협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은 계약 안에 명시해 필요한 작업이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합니다.

Life

성공한 사람의 스트레스 대처법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면 육체와 정신을 힘들게 한다. 이런 스트레스가 생길 때 성공한 사람의 스트레스 대처법을 알아보자.

1. 걱정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

"잘못되면 어쩌지…"라고 하는 말은 스트레스와 걱정에 불을 붙이는 꼴이 된다. 어떤 일을 할 때 걱정하는데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마음에 안정과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

2. 가진 것에 감사한다

감사해야 할 것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23%나 감소해 기분이 좋아진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사람은 신체 건강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잠을 푹 잔다

잠자는 동안 뇌는 재충전된다. 그날의 기억 중에서 버려야 할 것과 간직해야 할 것을 구별함으로써 일어났을 때 머릿속을 깨끗하게 한다. 반면에 수면을 박탈당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4. 원한을 품지 않는다

원한을 갖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 반응을 초래한다.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되면 신체를 투쟁과 도피 반응으로 들어가게 한다. 위협이 임박했을 때는 이런 반응이 필요하지만 위협이 지나갔을 때는 스트레스가 생겨 건강에 큰 해를 끼친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인류가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제한적 사랑과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리는 무제한적 사랑이 있습니다. 제한적 사랑은 해와 비, 공기와 같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보편적인 혜택과 세상에서 형통할 수 있는 것 등을 말합니다(마 5:45). 제한적 사랑은 물리적인 공간과 시간의 개념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무제한적 사랑은 지구의 종말이 와도 영원히 지속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합니다(롬 8:39).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요 3:16).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세상에 끝이 와도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히 5:7)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아들의 모습과 통곡 소리를 듣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요 3:16). 이처럼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픔과 인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상에 끝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좇는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락교회 원로감독 김기동 목사

무화과나무 아래



죄인

"모든 것이 탄로 났으니 몸을 숨기시오!" 셜록 홈즈의 작가 코난 도일(Arthur Conan Doyle, 1859~1930)이 고위층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전보를 보냈다. 이후 친구들의 집을 차례로 방문한 코난 도일은 친구들을 한 사람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한다. "친구들이 아직까지 소식이 없군. 모두 죄인이네~." 하나님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영원히 죽게 된 인간들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복음은 죄에서 몸을 숨기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다.



신호

아무리 급히 건너가고 싶어도 빨간불에는 잠시 멈추고
그저 서 있고 싶어도 녹색불에는 빨리 건너야 하듯
하나님이 켜주시는 신호 따라 건너가는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갈릴리전화상담실 | 당신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 시간: 평일(화~금)_ 오전 11시~오후 2시 주일_ 오전 11시~오후 3시 문의: 070-7300-6767~9 * 토요일, 공휴일 휴무

성락교회 예배시간 및 장소 안내

주 일 예 배 1부 : 오전 7:00(세계센터)
2부 : 오전 9:00(세계센터)
3부 : 오전 11:00(세계센터)
연합 : 오후 2:50(세계센터)

새벽기도회(월~금) : 오전 5:00(신길본당, 세계센터)
수 요 예 배 : 오후 7:30(기독청년선교회관)
금요철야기도회 : 오후 9:00(기독청년선교회관)
베뢰아신유성회 : (화) · 오후 2:00 / (목) · 오전 10:30(복음관 7층)

신길본당: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311 / 세계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 56-24 TEL. 목회실: 070-7300-6200
교회사무처: 070-7300-6300 / www.sungrak.or.kr

구독안내 070-7300-6709

우송후원금(1년) 7,000원

국민은행: 765-01-0033-508
우리은행: 294-000511-01-078
예금주:성락침례교회

구독을 원하시는 개척교회는
〈Letter from Jesus〉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